

다양성 공감…‘퀴어 콘텐츠’ 제작 물꼬 텃다

“변화 이끌다” 해외 매체들 주목
방송가 조심스러운 제작 움직임
일각선 동성에 미화 규탄 집회
임창혁 PD “진정성 있다면 통해”

“변화의 기점.”

국내 최초로 성소수자 소재를 내세운 웨이브 예능 콘텐츠 ‘메리 퀴어’가 초반 화제몰이를 시작하며 방송가 흐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중심으로 퀴어 요소 등 ‘다양성’에 집중하는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변화 등 개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해외 언론 매체도 주목

웨이브는 성소수자 커플들의 일상을 담은 ‘메리 퀴어’와 남성 동성애자들이



웨이브 예능 콘텐츠 ‘메리 퀴어’가 성소수자 커플들의 일상을 다뤄 방송가 안팎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제공 | 웨이브

한 숙소에 머물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콘텐츠 ‘남의 연애’를 공개하고 있다. 그동안 방송가에서 다뤄지지 않은 소재가 시청자의 호기심을 잡아끌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웨이브에 따르면 ‘남의 연애’는 7월 15일 공개 직후 SBS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 예능프로그램 ‘런닝맨’ 등 인기 콘텐츠를 제치고 올해 가장 많은 신규 유료 가입자수를 모았다. ‘메리 퀴어’도 방영 2주 만에 시청

시간이 43%가량 폭등했다.

시청자들은 성소수자들이 겪는 사회적 편견을 자극적이지 않게 다루면서 “관심과 공감을 함께 일으켰다”며 호평하고 있다. 이는 김민준·박보성 커플 등 ‘메리 퀴어’의 출연자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이들은 최근 몇몇 패션 잡지들과 화보 촬영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말 미국 타임 등 해외 유력 매체들과도 화상 인터뷰를 가졌다. 1일 웨이브 관계자는 “국내 방송가에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일부 해외 매체들이 ‘메리 퀴어’ 제작진과 출연자들에게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가야할 길 멀다’

흐름을 따라 각종 예능 콘텐츠 제작진이 출연자의 폭을 넓히고 있다. 채널A 서바이벌 예능프로그램 ‘펜트하우스’에는 ‘드랙’(사회적으로 고정된 성별의 정 의에서 벗어나 과장된 메이크업과 패션,

퍼포먼스를 펼치는 행위) 댄서 지반이 참가자로 나섰다. 지반은 서바이벌에 참가한 이유로 “벽장 안에 있는 성소수자 친구들이 날 보고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작진이 퀴어 소재를 핵심으로 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동성애 소재에 대한 일각의 우려 섞인 시선은 넘어야 할 산이다. 일부 맘카페 등에서는 ““메리 퀴어’가 동성애를 미화·조장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최근 일부 시민단체는 콘텐츠 제작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메리 퀴어’와 ‘남의 연애’ 등을 기획한 임창혁 웨이브 프로듀서는 1일 “관련 소재에 대한 대중화 및 공론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들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담아내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따를 것이다”고 기대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싸이, ‘흠뻑쇼’ 철거 외국인 노동자 추락사 애도

가수 싸이가 자신의 콘서트인 ‘흠뻑쇼’ 무대 설비를 철거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애도하며 “재발방지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사고는 7월 31일 오후 53분경 강원도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조명탑 철거 작업을 하던 20대 몽골 남성 A씨가 15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1일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재 첫 영화 ‘헌트’ 해외 144개국에 선판매

배우 이정재가 처음 연출한 영화 ‘헌트’가 해외 144개국에 선판매됐다. 1일 배급사 메가박스에 따르면 일본·대만·홍콩 등 아시아를 비롯해 독일·프랑스·브라질·멕시코 등 유럽과 남미 국가에서 판권을 구매했다. 10일 개봉하는 영화는 1980년대 안기부 요원 이정재와 정우성이 서로를 간첩으로 의심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5월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부문에 이어 9월 개막하는 토론토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에도 초청됐다.

걸스데이 방민아,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홍보대사

걸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방민아가 서울국제여성영화제 8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방민아는 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제24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공식 기자회견에서 위촉장을 받았다. 영화제는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8일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그는 이날 “전 세계 여성 영화인들의 열정과 가능성이 살아 숨 쉬는 작품들을 그들의 눈과 귀, 입이 되어 함께 알릴 수 있어 무척 기쁘고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제이홉 솔로 첫 해외무대…“두려움의 연속 이겨냈다”

美 음악축제 시카고 ‘롤라팔루자’
한국 가수 첫 메인·피날레 장식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제이홉이 솔로로 오른 첫 해외무대까지 완벽하게 마쳤다. 제이홉은 1일(한국시간) 미국 유명 음악 축제인 시카고 ‘롤라팔루자’(LOLLAPALOOZA)에 헤드라이너(간판 출연자)로 출연해 20여 곡의 무대를 선보이며 현지 팬들을 열광하게 했다. 이 무대는 방탄소년단이 그룹 활동을 잠정 중단한 후 제이홉이 솔로 활동 첫 주자로 나선다는 점에서 국내외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한국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주요 음악 페스티벌 메인 스테이지는 물론 피날레까지 장식해 눈길을 끌었다.

롤라팔루자는 시카고에서 매년 개최되는 대규모 야외 음악 축제로 폴 메카트니, 메탈리카, 콜드플레이 등도 무대에 올랐다.

이날 제이홉은 지난달 발표한 솔로 데뷔 음반 ‘잭 인 더 박스’(Jack In The Box)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모어’(more)를 선보인 후 “저는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다. 제이라고 불러도 된다”며 인사했다. 또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의 트로피컬(Tropical) 버전 곡의 무대를 선보이면서 “내가 춤을 출 테니 여러분은 노래를 불러 달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베키 지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미국 가수 리베카 메리 고메즈는 이날 짝짝 게스트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치킨 누들 수프’(Chicken Noodle Soup)를 협업했고, 무대

를 마친 후 포옹하며 우정을 나눴다.

제이홉은 “지금은 내게 의미 있는 순간이다. 욕심과 치기 어린 야망으로 시작된 이 앨범의 과정이 성대하게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었다”며 “이 앨범을 통해 소화한 모든 스케줄이 내게 피와 살이 됐다. 오늘 공연하며 다시 확고한 믿음이 생긴 것 같다”라고 솔로로 나선 부담감을 드러냈다.

또 “이 시간이 나한테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굉장히 뜻 깊은 하나의 순간이었다”라며 “이 순간을 이겨낸 나 자신에게 약간 낮간지럽지만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해 주고 싶다”고 울컥하며 말했다.

이날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은 공연장을 방문해 제이홉을 응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이 1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 그랜드파크에서 열린 대형 음악축제 ‘롤라팔루자’의 무대에 올라 공연하고 있다. 시카고(미국) | AP·뉴시스

일본판 ‘이태원 클라쓰’…“원작 패러디물” 혹평

리메이크 ‘롯데기 클라쓰’ 기대 이하
되레 한국 원작 역주행…K콘텐츠 힘

화제의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를 리메이킹한 일본 드라마 ‘롯데기 클라쓰’가 기대 속에 방송했지만 전개 방식 등의 불만 등으로 혹평을 받고 있다. 오히려 2020년 종영한 원작 드라마가 현지 차트에서 역주행하며 다시 한번 ‘케이(K)콘텐츠’의 파워를 입증하고 있다.



롯데기 클라쓰

지난달 7일 일본 지상파 방송 TV아사히를 통해 첫 방송한 ‘롯데기 클라쓰’는 9.6%의 시청률로 스타트를 끊었다. TV아사히 드라마 첫 회 시청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원작 드라마가 현지에서 방송 당시 신드롬급 연은

인기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수치다.

‘롯데기 클라쓰’는 일본 도쿄의 롯데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로, 라이징스타로 떠오른 타케우치 료마가 주연을 맡았다. 원작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 남자 주인공인 박새로이 역의 독특한 헤어스타일까지 그대로 살렸다.

하지만 시청률은 최근 최저 수치인 7%까지 떨어졌고, 첫 방송부터 쏟아진 혹평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최대 영화·드라마 평점 사이트 필마크스에서 ‘이태원 클라쓰’가 5점 만점에 4.2점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롯데기 클라쓰’는 2.7점을 받았

다. 특히 일본 누리꾼들은 원작 드라마와 비교하며 “원작을 망쳤다”, “패러디물이 나 쏘드 같다”, “일본드라마도 한국드라마도 아닌 것 같다”, “코스프레를 하는 느낌이다”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롯데기 클라쓰’ 방송과 동시에 ‘이태원 클라쓰’는 일본에서 역주행하며 재조명받고 있다. 2020년 방영 당시에도 일본 넷플릭스 많이 본 드라마 순위 1위를 장기 집권했던 ‘이태원 클라쓰’는 ‘롯데기 클라쓰’가 처음 방송된 후 곧바로 해당 차트 1위를 탈환했다.

현재까지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1·

2위를 엮치락뒤치락 오가고 있다. 반면 ‘롯데기 클라쓰’의 해당 차트에 4위로 첫 진입했으나 현재 10위권 안팎을 오가고 있다.

일본 내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공을 거둔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작마저 반응을 얻지 못하자 현지 콘텐츠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대중문화 비평가 키타무라 료헤이는 “1990년대 무렵의 젊은 세대들이 미국을 향해 절대적인 부러움과 질투 등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런 동경의 눈빛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 이는 일본보다 퀄리티가 높은 한국 영화나 한류 드라마를 자주 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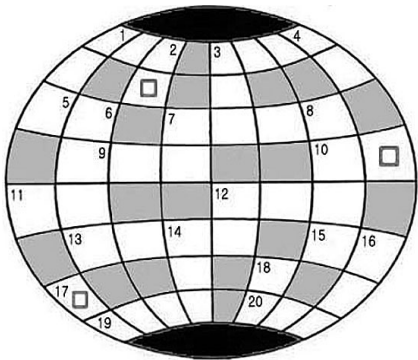
	5		8	4				
		9				4		5
	7			9	3			
			2	7		4		3
6	4	1				8	7	9
7			9		6	2		
				4	3			6
4		7				3		
				6	9		4	

	5		7	9	1			
		2				4		7
	1	3				6	9	
2				3				8
9			6		4			1
1				7				4
	2	8				7	3	
3		1				8		
			3	8	7		5	

■ 스도쿠정답

8	9	1	2	6	9	1	8	2	5
1	6	8	9	5	2	1	2	9	7
2	9	5	1	8	7	8	6	1	
7	1	2	8	6	9	5	8	1	
6	1	8	5	2	1	7	9	9	
8	9	9	7	1	1	7	2	8	6
9	8	1	6	9	1	1	2	1	
5	2	6	1	7	9	9	6	1	
4	9	1	7	9	9	6	9	7	
9	7	8	9	5	2	6	1	2	8
6	8	2	9	1	7	8	2	5	
7	9	6	8	1	2	9	5	8	1
1	2	8	7	5	9	1	2	8	6
8	1	9	6	8	1	9	7	2	
9	6	8	2	7	9	8	1	1	1
1	7	1	8	9	5	2	6	8	
8	8	2	1	6	1	7	9	9	

■ 낱말문제



■ 가로 열쇠

01.물속에서 사는 동물, 특히 어류에 발달한 호흡 기관. 03.교통 법규상 제 한되어 있는 속도를 넘는 속력을 내는 일. 05.마주 대해 이야기함. 또는 그 이야기. 07.몹시 애타게 기다림. 09.상황에 따라 재빠르게 움직이거

나 대처하는 능력. 10.뽕나무의 열매. 11.막아서 거치적거림. 12.나사 모양으로 되어 늘고 주는 탄력이 있는 쇠. 스프링. 13.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함. 15.물건을 모아 간수함. 19.무사(武士).“싸ㅇㅇㅇ” 20.편히 쉬는 곳.

■ 세로 열쇠

01.열대와 온대의 중간 지대. 02.용모가 아름다운 여자. 03.남을 속이는 짓. 또는 그런 술수. 04.순종하지 않고 저항함. 06.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부드러운 기운(氣運)이 넘쳐 흐름을 이르는 말 07.학문의 실력. 학문을 쌓은 정도. 08.크게 깨달아서 번뇌(煩惱)·미망(迷妄)이 없어짐.“ㅇㅇㅇㅇ” 12.용맹스러운 장수. 14.경축하

거나 조문하는 데에 드는 비용. 16.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맞은 아내.‘ㅇ가ㅇ’ 17.기분이 좋거나 일이 잘풀릴때 쓰는 말 18.위로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함.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공간을 이 어놓으면 나라 이름이 됩니다.

